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Self-concept of
Adopted Children in Open Adoptive Families*

조민혜(Min-hae Cho)¹⁾

강현아(Hyun-Ah Kang)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family resilience on the self-concept of adopted children in open adoptive families in Korea.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94 adoptive parents and 113 of their elementary-aged adopted childre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amily resilience level of open adoptive families was 2.91 out of 4 full points. Second, the self-concept of adopted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than a norm group. Finally,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adoption related factors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self-concept of adopted children. Only the organization patterns of family resilience positively affected the self-concept of adopted children.

Key Words : 공개입양가정(open adoptive family), 가족 레질리언스(family resilience), 입양아동(adopted child), 자아개념(self-concept).

I. 서 론

우리나라는 혈연중심의 가족주의 문화로 인해 그동안 비밀입양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국내입

양이 상당히 저조한 실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입양과 관련한 사회적 상황들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2007년

* 본 논문은 2009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¹⁾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 사무국장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n-hae Cho, MPAK #304, 36, Jungangdong, Gwachoun, Gyeonggi-do 427-806, Korea
E-mail : eustressor@naver.com

에는 처음으로 국내입양률이 52.3%로, 47.7%인 국외입양의 비율을 앞서게 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또한 입양에 대한 사회 일반인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공개입양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입양부모들의 욕구도 커져가고 있다(권지성·김진숙·정정호, 2007).

입양아동들은 스스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달단계에 따라 입양과 관련된 과업에 대처하기 시작한다. 자신의 출생과 관련한 정보를 찾으려는 노력과 함께 친생부모나 가족과의 만남을 시도할 수도 있다(Brodzinsky, Smith, & Brondzinsky, 1998). 특별히 입양아동들이 입양됨의 의미를 이해할 때는 버려짐과 상실의 경험을 다루게 되는데, 이는 자아개념과 자기 가치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아개념은 자신이 처한 생활의 장에서 자신에 대해 갖는 지각, 신념, 태도들이 종합된 형태이다(이위환·권용신, 2006). 따라서 입양아동들에게 자아개념 확립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입양아동이 수치심에 기반을 둔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발달시키게 되면 어떤 시기에든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게 정서적인 갈등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입양아동의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발달단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입양됨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으로 내면화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이루도록 도울 것이다(김홍찬, 2008; 안재진, 2002).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교나 가정과 관련된 변인들과 개인적인 변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류상희, 2001). 이 중에서도 가정은 아동의 일차적 환경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가족관련 변인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상분(1992)은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윤종희(1990)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정 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윤미(2005)는 쌍둥이가 공유하는 환경인 가정의 변인 중에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입양아동 역시 건전한 자아개념의 확립을 위해 입양됨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고, 아동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양육환경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백경숙·변미희, 2001; Brondzinsky, 2006). 즉, 입양부모는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자녀가 점차 자신의 입양사실에 대해 갖는 호기심을 지지하고, 입양아동이 입양됨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지성(2003)의 연구에서는 공개입양가정의 이러한 적극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입양아동과의 관계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조모임을 통해 지지와 격려를 얻고, 다른 입양가정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공개입양을 이루기 위한 가족 구성원들의 신념과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 내 타인의 영향이 대처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개입양가정의 특성은 권지성과 안재진(2005)의 연구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공개입양부모

의 양육 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로 자조모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개입양가정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긍정적이고 자원이 풍부할수록 스트레스가 완화 되어 입양가정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안재진(2008)의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이와 같이 입양사실의 공개로 인한 어려움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면서 건강한 적응을 이루는 공개입양가정의 모습은 Walsh(2002)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다.

Walsh(2002)는 가족 레질리언스를 ‘기능적 단위로써의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위기와 역경을 경험하는 가족이 파괴된다는 기존의 관점에서 도전 받는다는 관점으로 전환하였으며, 체계적인 관점에서 기능적 단위로써의 가족이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의 과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Walsh(1998)는 효과적인 가족기능의 핵심요소들을 도출해 낸 연구결과에 기반을 두고 가족 레질리언스를 신념체계(Belief system),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 processes)을 포함하는 개념적 틀로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각각의 영역은 3개의 하위요인을 갖는다. 즉, 신념체계는 가족통제감, 긍정적 시각, 도덕 및 종교성의 하위요인으로, 조직유형은 융통성, 연결성, 가족자원의 하위요인으로, 의사소통과정은 명료성, 정서반응차원, 문제해결차원의 하위요인으로 설명된다. 각 영역의 개념을 살펴보면, 신념체계는 레질리언스를 구성하는 구심점으로 작용하여 가족 간의 응집력을 제공하고, 가족이 경험하게 된 위기상황을 이해하고 경험들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유형은 자원을 동원하고 스트레스를 중재하는 등의 위기와 역경을 다루기

위해 가족의 구조를 재조직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정은 모든 가족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능적인 가족구성원들이 신속한 대응과 실제적인 정보, 의견 및 감정을 전달하는 모든 내용과 관계의 본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Walsh(1998)가 제시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개념은 공개입양가정이 입양아동을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변화의 국면에서, 자원을 강화하며,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력을 포함한 가족기능 강화라는 발달과업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가족 레질리언스는 입양아동이 가진 적절한 관습을 채택하여 가족 구성원들과의 통합을 위해 가족의 의식을 재조정하는 노력을 말한다(Brodzinsky et al., 1998; Brodzinsky, Lang, & Smith, 1995).

입양아동과 같이 아동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족유형의 가족 레질리언스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미옥(2001)은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장애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 레질리언스가 장애아동가족의 적응뿐만 아니라 아동의 사회적 능력 향상에도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은정(2008)의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였는데,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에 가족 레질리언스의 모든 하위영역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일차적인 생활환경이 가정임을 고려해볼 때, 가족 레질리언스는 입양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특별히 자아개념은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므로, 그 영향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개

입양가정의 적응과정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가족 레질리언스는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비밀입양의 문화로 인해 공개입양가정과 입양아동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입양과 관련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들은 입양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으나(Brodzinsky et al., 1998),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이며 실증적 증거의 축적도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국내 공개입양아동의 발달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요인들로는 입양아동의 입양당시 나이, 성별, 입양가정의 형제 수, 입양모의 학력, 입양 후 양육기간, 양육행동 등이 있다(박미정, 2008; 안재진, 2002). 그러나 대부분의 입양관련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혜정, 2005; 권지성, 2003; 김가득, 2008; 송희연, 2006; 안재진, 2008; 양성모, 2005; 윤현선, 2001; 이현정, 2002; 정명례, 2004; 현태욱, 2004).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그 샘플크기가 매우 작거나,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듯 입양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공개입양가정의 가족기능이나 적응의 결과가 입양아동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공개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실증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의 수준과 입양아동 자아개념 수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개입양가정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공개입양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입양관련 특성과 입양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공개입양가정의 입양부모와 그 초등학생 입양자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장애아동을 입양자녀로 둔 경우는 아동의 자아개념이나 가족 레질리언스가 일반아동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제외하였다. 또한 가족 레질리언스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이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됨을 고려하여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 배치된 후 2년 이상 된 아동의 사례로 제한하였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확률표집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일정 기준의 연구 사례를 확보해야 하나, 국내 공개입양가정들을 추정할 수 없고, 연구대상자의 확보가 어려운 한계로 단일 집단에서 임의표집 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 표본 집단으로써 국내 입양가족 자조모임 중 가

장 활성화되어 있는 한국입양홍보회(MPAK)¹⁾의 회원가정을 선정하여 총 205가정에 설문지를 요청하였으며, 이중 약 46%인 96가정의 설문자료를 확보하였다. 응답비율이 비교적 저조하였으나 대부분의 설문지가 성실하게 작성되어 두 가정만 제외되었다. 그 결과 총 94명의 입양부모와 113명 입양아동의 설문지 자료가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

본 연구는 Walsh(1998)의 가족 레질리언스에 대한 이론을 근거로 김은정(2008)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요인들을 살펴보면, 신념체계(Belief system)가 19문항으로 가족통제감(9문항), 긍정적 시각(5문항), 도덕 및 종교성(5문항)으로 구성된다. 신념체계는 응집력을 제공하고, 가족구성원들이 위기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험을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조직유형(Organizational patterns)은 총 22문항으로 융통성(8문항), 연결성(8문항), 가족자원(6문항)으로 구성된다. 조직유형은 가족이 하나의 단위체계로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의사소통과정(Communication processes)은 20문항으로 명료성(7문항), 정서반응차원(7문항), 문제해결차원(6문항)으로 구성된다. 의사소

1) 한국입양홍보회(MPAK)는 국내 최초의 입양가족 자조모임 단체로 입양기관과 관계없이 입양부모가 자발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참여하는 곳으로 공식적으로 대내외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다. 공개입양을 지향하며 입양 후 건강한 적응을 돕는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입양을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 12월 당시 약 1,030여 가정을 회원으로 22개의 지역모임이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통과정은 모든 가족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정보, 의견 혹은 감정을 전달하는 내용과 관계의 본질을 의미한다.

모든 항목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로 응답되어지며 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정말 그렇다(4점)까지 점수화 하여 분석에 이용되었다. 가족 레질리언스 각 구성요소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신념체계의 경우 .76, 조직유형이 .75, 의사소통과정이 .90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2)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척도로는 이경화와 고진영(2006)이 Marsh(1984; 1990)의 자아개념 모형 및 측정도구를 기초로 개발하여 표준화한 SCI(Self Concept Inventory)중에서 초등학생용을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용 자아개념 검사(SCI-II)'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아니다(1점)부터 아주 그렇다(5점)까지 점수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초등학생용 자아개념 검사의 하위요인은 3개의 학문적 자아개념 영역과 5개의 비학문적 자아개념 영역으로 구분된다. 학문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은 언어 자아, 수학 자아, 일반교과 자아로 구성되고, 비학문적 자아개념의 하위영역은 신체외모 자아, 신체능력 자아, 친구관계 자아, 부모관계 자아, 일반 자아로 분류된다.

각 영역에 8문항씩 총 64문항으로 구성되고 전체 신뢰도(Cronbach's alpha)는 .95로 높게 나타났다으며 각 하위 요인별 신뢰도 분포는 .79-.95로 산출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09년 1월 둘째

주부터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한국입양홍보회 서울·경기지역 입양가족모임에 참석하여 입양가족 10사례(부모 10명, 아동 15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월부터 3월까지 약 2달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한국입양홍보회 입양가정 지역모임 및 행사에 참석하여 본 연구의 취지 및 측정도구 내용,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입양부모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입양아동의 경우에는 설문지 문항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 하는 저학년은 설문지 작성에 연구자가 도움을 주었다. 지역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입양가족들에게는 전화로 본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 후, 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 WIN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고, 공개입양가정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및 입양관련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

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분석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입양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입양아동들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은 남아가 51.3%, 여아가 47.8%로 남녀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입양아동의 평균 연령은 만8.3세로 나타났다. 저학년 연령인 만6세~만9세가 71.9%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00년 이후에 한국입양홍보회의 설립과 함께 공개입양이 활성화 된 점을 감안하면 공개입양아동의 연령에 있어 아직은 저학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입양당시 연령으로는 12개월 미만에 입양 된 아동이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6개월 이후에 입양된 연장아동의 비율

<표 1> 입양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N = 113)

변수	빈도	백분율	
성별	남	58	51.3
	여	54	47.8
	무응답	1	.9
연령 (M = 8.3 SD = 1.62)	만 6세	10	8.8
	만 7세	33	29.2
	만 8세	27	23.9
	만 9세	17	15.0
	만 10세	12	10.6
	만 11세	6	5.3
	만 12세	7	6.2
	무응답	1	.9

<표 1> 계속

	변수	빈도	백분율
입양당시 연령	6개월 미만	48	42.5
	7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9	16.8
	12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17	15.1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5	4.4
	36개월 이상	24	21.2
입양 후 양육 기간	24개월 이상 ~ 48개월 이하	12	10.6
	48개월 이상 ~ 72개월 이하	9	8.0
	72개월 이상 ~ 96개월 이하	48	42.5
	96개월 이상 ~ 120개월 이하	30	26.5
	120개월 이상	14	12.4

도 21.2%로 높게 나타났다. 입양 후 양육기간을 살펴보면 72개월 이상 양육한 아동이 81.4%이며 최소 72개월에서 최대 155개월 동안 양육된 아동들로 분포를 이루고 있다.

2)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입양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부

<표 2>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 특성 (N = 94)

변수	부		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연령	30세 이상 ~ 40세 미만	1	1.1	9	9.6
	40세 이상 ~ 50세 미만	57	60.6	67	71.3
	50세 이상 ~ 60세 미만	33	35.1	18	19.1
	60세 이상	3	3.2	0	0.0
학력	초졸	1	1.1	1	1.1
	중졸	4	4.3	4	4.3
	고졸	23	24.5	33	35.1
	대졸	34	36.2	43	45.7
	대학원 이상	29	30.9	11	11.7
	무응답	3	3.2	2	2.1
직업	무직 및 주부	0	0.0	56	59.6
	전문직	8	8.5	7	7.4
	기술직	9	9.6	0	0.0
	사무직	16	17.0	3	3.2
	자영업	22	23.4	10	10.6
	생산직	2	2.1	0	0.0
	교직	5	5.3	4	4.3
	목사 및 전도사	21	22.3	1	1.1
	기타	5	5.3	11	11.7
	무응답	6	6.4	2	2.1

<표 2> 계속

	변수	빈도	백분율
월소득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6	6.4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21	22.3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26	27.7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7	7.4
	500만원 이상	34	36.2
결혼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	2	2.1
	10년 이상 ~ 15년 미만	19	20.2
	15년 이상 ~ 20년 미만	34	36.2
	20년 이상	39	41.5
가족 수	3명	14	14.9
	4명	29	30.9
	5명	23	24.5
	6명	17	18.1
	7명 이상	11	11.7
불입여부	예	32	34.0
	아니오	61	64.9
	무응답	1	1.1
입양 자녀수	1명	45	47.9
	2명	35	37.2
	3명	6	6.4
	4명	4	4.3
	5명	2	2.1
	무응답	1	1.1
입양결정에 대한 다른 가족들의 반응	매우 반대	5	5.3
	대체로 반대	22	23.4
	반반정도	15	16.0
	대체로 환영	37	39.4
	매우 환영	14	14.9
	무응답	1	1.1
입양에 대한 만족도	매우 불만족	1	1.1
	불만족	3	3.2
	보통	3	3.2
	만족	31	33.0
	매우 만족	56	59.6

와 모의 연령 평균은 48.46세, 46.05세로 나타났으며, 50세 이상의 부가 38.3%, 모가 19.1%로 조사대상 입양아동의 평균연령이 8.3세임을 감안하면 다소 연령이 높은 부모들이 큰 비율을 차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으로 대졸이상이 각각 67.1%, 57.4%로 공개입양가정의 부모의 학력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직업현황을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이 38.3%로 나타나고 있으

며, 부의 직업으로는 자영업이 23.4%로 가장 높고 목사 및 전도사가 22.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양가정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은 약 410만원으로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매우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결혼기간은 20년 이상인 가정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가족 구성원 수는 4명이 30.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7명 이상인 가정도 11.7%로 나타났다. 공개입양 가정의 경우 비불임이 64.9%로 불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공개입양가정에 대한 다른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동일하다(김가득, 2008; 박미정, 2008; 안재진, 2008).

한편, 입양가정의 입양관련 특성으로 가정 내 입양아동의 수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인 초등학교 입학 아동 1명만 입양한 가정이 4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명인 가정이 37.2%, 3명 이상인 가정도 12.8%로 나타나고 있다. 입양결정에 대한 다른 가족들의 반응으로는 대체로 반대 및 매우 반대의 경우가 28.7%, 대체로 환영 및 매우

환영이 54.3%로 나타나 가족 안에서 입양에 대한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입양에 대한 입양부모의 만족 정도는 매우만족이 59.6%, 만족이 33.0%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불만족의 경우는 4.3% 밖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 공개입양가정의 경우 입양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 수준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 수준은 <표 3>과 같다. 전체 가족 레질리언스의 평균값은 2.91점으로 중간 값인 2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0-4점 측정). 하위영역별로는 신념체계 2.99점, 의사소통과정 2.98점, 조직유형 2.74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매우 근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양가정의 높은 신념체계 수준은 그 가정이 입양으로 인해 새롭게 경험하는 상황을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태

<표 3>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 수준

(N = 94)

변수	범주(0-4점 측정)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족 레질리언스 (M = 2.91 SD = .39)	신념체계	가족통제감	1.11	3.67	2.76	.47
		긍정적 시각	1.40	4.00	3.17	.55
		도덕 및 종교성	.40	4.00	3.05	.71
	신념체계 평균				2.99	.46
	조직유형	융통성	1.00	3.63	2.86	.44
		연결성	1.71	4.00	3.02	.52
		가족자원	.00	3.50	2.31	.61
	조직유형 평균				2.74	.39
	의사소통 과정	명료성	1.14	4.00	2.90	.44
		정서반응차원	.57	4.00	3.07	.60
문제해결차원		.00	4.00	2.95	.58	
의사소통 평균				2.98	.49	

도와 확신을 부여하여 입양아동과 기존의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응집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입양가정 내의 의사소통과정 수준이 높은 것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가족 간의 의견이나 감정의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입양을 통해 경험한 새로운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공개입양가정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 요인별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 영역은 신념체계의 긍정적 시각으로 3.17을 보이고, 반대로 최소값인 0점이 나타난 조직유형의 가족자원이 2.31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과정 내의 하위요인들은 모두 최대값인 4점이 나타나고 있어, 비록 문제해결 차원에서 최소값 0점을 보이고 있으나 하위요인 간의 평균 차이가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3.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은 <표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초등학생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은 총점 243.38로, 부모관계 자아

가 가장 높고, 수학 자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저학년 연령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등학생 자아개념 척도 SCI(Self Concept Inventory)의 초등학생 저학년 전국 표준화 점수와 비교해 보았다. 규준집단의 총점은 215.5로 243.38인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단일표본 t-검증을 통해서 살펴보면, 공개입양아동과 일반아동 간의 자아개념 수준에는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p < .001$). 각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관계 자아가 가장 높은 것이 동일하고, 수학 자아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이 일반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수준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4. 공개입양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입양 관련 특성과 입양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

통제변수인 공개입양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입양관련 특성과 입양아동의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Pearson) 적률

<표 4>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

(N = 113)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백분위	※ 일반초등학생 (저학년) 평균	t값
신체능력	13.00	40.00	31.37	6.38	79	26.8	7.609***
신체외모	13.00	40.00	30.34	6.13	89	24.4	10.299***
친구관계	15.00	40.00	31.53	5.68	82	26.2	9.987***
부모관계	14.00	40.00	34.11	5.18	62	32.0	4.340***
언어	10.00	40.00	29.67	7.68	60	27.6	2.868**
수학	8.00	40.00	27.72	8.79	53	27.7	.031
일반교과	14.00	39.00	28.09	6.02	72	24.9	5.645***
일반자아	12.00	40.00	30.55	5.72	81	25.9	8.654***
전체	122.00	318.00	243.38	35.52	77	215.5	8.356***

※ 이경화·고진영(2006)의 초등학생 저학년 자아개념 검사의 전국 표준화 점수(N = 332)

* $p < .05$. ** $p < .01$. *** $p < .001$.

<표 5> 공개입양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입양관련 특성과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자아 개념	
인구 사회학적 변수	모연령	-.220*	
	모학력	.193*	
	부직업	기술직	-.236*
		사무직	.146
		자영업 및 생산직	.027
		교직	-.019
		목사 및 전도사	.224*
		기타	-.301**
	소득수준	.002	
	결혼기간	-.101	
입양 관련 변수	불입여부	-.125	
	아동성별	.134	
	입양당시 연령	-.152	
	양육기간	.230*	
	입양 만족도	.232*	
	입양에 대한 반응	.210*	
	다른 입양아동 수	-.217*	

* $p < .05$. ** $p < .01$. *** $p < .001$.

상관관계 계수를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모연령과 부직업의 기술직 집단 그리고 기타 집단은 아동의 자아개념과 부적 상관관계를, 모학력과 부직업의 목사 및 전도사 집단은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입양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그리고 입양부의 직업이 목사 및 전도사 집단일 경우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의 점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입양관련 특성에서는 입양 후 양육기간, 입양에 대한 만족도, 입양결정에 따른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다른 입양아동 수는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즉,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은 입양 후 양육기간이 길수록, 입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입양에 대한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가정 내 다른 입양아동의 수가 적을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5.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독립변수인 가족 레질리언스와 종속변수인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6>을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영역인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과정은 모두 입양아동의 자아개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하위영역은 신념체계와 조직유형이며, 이중 조직유형이 상관계수 .268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개입양가정의 신념체계가 강할

<표 6>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신념체계	조직유형	의사소통 과정	자아개념
독립 변수	신념 체계	1.00			
	조직 유형	.625***	1.00		
	의사소통 과정	.580***	.635***	1.00	
종속 변수	자아 개념	.208*	.268**	.181	1.00

* $p < .05$. ** $p < .01$. *** $p < .001$.

수록, 조직유형이 통합적 일수록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의 수준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입력 방식을 취하였다.

우선, 통제변수는 입양아동의 인구학적 특성, 입양부모와 입양가정의 특성 중 선행연구에서 입양가족 및 입양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설정하였다. 이에 입양모의 연령과 교육수준, 입양부의 직업, 입양가정의 소득수준, 결혼기간 그리고 입양아동의 성별과 입양당시 연령 및 입양 후 양육기간이 통제변수로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다.

통제변수 중 입양가정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블록1에 투입하고, 블록2에는 또 다른 통제변수인 입양관련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블록3에 독립변수인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영역들을 투입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모형1과 모형2를 통해 통제변수 중에서는 입양가정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입양모 연령 및 학력, 입양부 직업, 소득수준, 결혼기간)이 전체로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나($\Delta R^2 = .272, p < .01$), 각각의 변수별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에서 투입된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조직유형만이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92, p < .05$). 이를 통해 공개입양가정의 조직유형이 통합적일수록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공개입양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과연 공개입양가족의 특성은 어떠한지, 그 가족기능의 특성이 입양아동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개입양가정의 기능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값이 2.91점으로(0-4점 측정) 중간점인 2점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하위영역별로는 신념체계가 2.99점, 조직유형이 2.74점, 의사소통과정이

<표 7>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변인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모형1 $\beta(t)$	모형2 $\beta(t)$	모형3 $\beta(t)$			
통계 변수	입양모 연령	-.185(-1.643)	-.080(-.683)	-.042(-.357)		
	입양모 학력(더미)*	.048(.386)	.019(.152)	.071(.555)		
	인구 사회학적 특성	부직업	기술직(더미)	-.094(-.611)	-.163(-1.049)	-.122(-.786)
			사무직(더미)	.212(1.331)	.108(.655)	.119(.733)
			자영업/생산직(더미)	.031(.185)	-.065(-.370)	-.011(-.063)
			교직(더미)	.009(.070)	-.054(-.417)	-.048(-.379)
			목사 및 전도사(더미)	.316(1.881)	.141(.787)	.102(.572)
			기타(더미)	-.204(-1.461)	-.225(-1.548)	-.155(-1.044)
	월평균 소득	결혼기간	.106(.845)	.102(.800)	.057(.443)	
			-.047(-.384)	-.185(-1.296)	-.178(-1.265)	
입양 관련 특성	불임여부(더미)		-.190(-1.434)	-.171(-1.305)		
	입양자녀성별(더미)		.052(.489)	.031(.291)		
	입양당시연령		-.080(-.600)	-.098(-.739)		
	입양 후 양육기간		.157(1.225)	.135(1.070)		
	입양에 대한 만족도		.094(.873)	.063(.581)		
	입양에 대한 다른 가족들의 반응		.148(1.295)	.125(1.103)		
	입양자녀 수		-.131(-1.198)	-.182(-1.638)		
독립변수	신념체계			.077(.602)		
	조직유형			.292*(2.123)		
	의사소통과정			.050(.405)		
adjust R^2	.179	.237	.303			
R^2 변화량	.272**	.111	.077*			
F값	2.947**	2.626**	2.933***			

* $p < .05$. ** $p < .01$. *** $p < .001$.

* 입양모의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의 학력의 빈도수가 5 미만임을 고려하여 0 = 고졸, 1 = 대졸 이상, 입양부의 직업은 전문직을 기준으로, 불임여부는 0 = 비불임, 1 = 불임, 입양아동의 성별은 0 = 여아, 1 = 남자로 더미변수로 변환

2.98점으로 신념체계와 의사소통과정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김안자, 2005; 안순옥, 2007)에서 위탁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 수준이 의사소통과정, 신념체계, 조직유형의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공개입양가정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개입양가정의 신념체계는 입양아동과 주변인들에게 입양을 공개하는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이에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공개입양가정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은 본 연구의 척도이기도 한 이경화와 고진영(2006)이 개발하여 표준화한 SCI(Self Concept Inventory)의 초등학

생용 자아개념 검사의 전국 표준화 점수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공개입양아동의 높은 자아개념 수준은 몇 가지 논의 점을 시사한다.

우선, 대부분의 설문조사가 한국입양홍보회의 지역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양부모의 특성에 따른 영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한국입양홍보회는 지역모임, 워크숍, 세미나 등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담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입양부모는 심리적인 지지와 함께 입양아동 양육과 관련한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갖게 된다(윤현선, 2001). 입양가정의 지지체계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단정할 순 없지만, 이러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입양부모의 양육태도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공개입양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입양부모가 아동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와 입양아동의 해석은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rodzinsky et al., 1998). 이에 자신의 입양사실을 자아개념에 통합할 수 있도록 받는 자극은 일반아동과는 달리 입양아동만이 갖는 특수성이 된다. 따라서 입양사실에 대한 부모의 긍정적인 메시지, 격려와 같은 자극이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을 높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구에 대한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개입양가정 중에서도 비교적 건강한 적응을 이룬 가정만이 연구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공개입양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입양관련 특성과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입양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그리고 입양부의 직업이 목사 및 전도사 집단일 경우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이 높았으며, 입양관련 특성으로는 입양 후 양육기간이 길수록, 입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입양에 대한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 긍정적이고 가정 내 다른 입양아동의 수가 적을수록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입양아동의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들과 비교해볼 때, 적응 영역별로 입양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인 적응이나 문제행동은 입양당시연령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박미정, 2008; 안재진, 2002; 최운선·안재진·변미희·권지성, 2008). 그러나 입양아동의 사회성 발달은 입양가정의 경제적 지위와 친자유무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최운선 외, 2008). 그러나 본 연구결과 아동의 자아개념에는 가족 레질리언스의 조직유형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을 이루는 각각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각기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연구문제인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개입양가정의 가족 레질리언스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가족 레질리언스의 하위영역인 신념체계가 강할수록, 조직유형이 통합적일수록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의 수준

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공개입양가정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입양관련 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 변수인 가족 레질리언스가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족 레질리언스의 조직유형만이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가족의 경계와 조직이 안정되고 변화를 수용하면서 균형 유지를 할 수 있는 힘은 입양아동이 긍정적인 자아개념 확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Brondzinsky 등(1995)이 특수유아 입양아동의 적응에 있어 입양부모들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들은 아동의 입양 이전에 형성된 생활습관을 적절히 채택하여 가족 내로 통합시키고, 입양아동과 기존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유사성을 발견하여 이를 중심으로 가정 내외의 환경이나 주변인들의 인식을 변화시켜가는 입양부모의 노력이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즉 입양아동과 가족 구성원들의 차이점을 잘 수용하여 건강한 경계를 갖춘 가운데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는 것이 입양아동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진 가족의 의사소통과정이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Lichtenstein(1996)에 의하면 입양아동은 부모와 함께 나누는 입양관련대화를 통해 자신의 입양사실과 관련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하고 친생부모에 대한 환상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자신의 입양사실을 새롭게 정립하게 되므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나아가 Grotevant, Ross, Marchel와 McRoy(1999)는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과의 대화에서 입양사실에 대한 공개수준이나 이야기의 횟수 그 자체보다 입양부모의 태도가 더 중요한 요인임을 언급하였다. 즉, 입양아동과 입양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해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가가 추후 입양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또한 Brondzinsky(2006)는 입양부모가 입양아동과의 의사소통에서 입양과 관련한 질문이나 대화에 깊은 공감을 표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이 높아짐을 밝혔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입양아동에게 있어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입양관련 의사소통과 이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입양아동의 건강한 적응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로 박미정(2008)의 공개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일반 의사소통 개방성은 입양아동의 사회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반면, 입양관련 의사소통 개방성은 사회적 위축과 또래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위축은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입양아동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과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미정, 2008). 따라서 입양아동에게 있어 입양관련 의사소통은 일반 의사소통과 함께 아동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 레질리언스의 의사소통과정 척도는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관한 것이므로 입양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관련 의사소통과정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과정이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보다 정확한 원인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가족 레질리언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됨으로써 입양가정이 입양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삶의 도전과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특별히, 조직 유형과 관련한 가족 레질리언스를 높여 입양아동의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을 돕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면 입양가정이 보다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 수준은 공개입양아동이 건강한 적응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공개입양아동의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발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공개입양가정을 추정할 수 없는 실정으로 특정 집단에 소속된 공개입양가정만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 하여 표본크기가 작고 연구결과를 전체 공개입양가정에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경로를 고려하여 연구대상을 표집하고 표본의 크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의 자아개념은 개인적·가정적·환경적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달하는 것이므로 입양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입양아동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전체 공개입양아동을 대표할 수 없다. 따라서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기의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자아개념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혜정(2005). 연장아 입양 부모의 자녀문제 지각과 적응 촉진요소 및 장애요소에 대한 사례연구 : 한국입양홍보회(MPAK) 연장아 입양가족을 중심으로 부모의 관점에서 본 사례.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성(2003).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 한국입양홍보회 참여가족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지성 · 김진숙 · 정정호(2007). 국내입양실무자들이 경험한 입양실무의 의미. **사회복지연구**, 32, 207-235.
- 권지성 · 안재진(2005). 국내 공개입양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아동권리연구**, 9(3), **한국아동권리학회**, 393-412.
- 김가득(2008). 공개입양가족의 가족기능 결정요인.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옥(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안자(2005). 가족레질리언스가 한부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2008). 가족레질리언스가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홍찬(2008). 상담의 이론과 실제. **보건복지가족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제1기 입양실무과정 자료집**, 35-44.
- 류상희(2001). 아동의 자아개념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14(2), 115-126.
- 박미정(2008). 공개입양입양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 입양모의 양육행동과 입양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경숙 · 변미희(2001). 공개입양부모를 위한 사전사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아동권리연구**, 5(2), 135-152.
- 보건복지가족부(2009). 아동입양기관수 및 입양아동

- 수. 보건복지가족부 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stat.mw.go.kr>에서 2009년 4월 24일 인출.
- 송희연(2006). 입양가족의 적응과 공개입양활성화에 관한 연구 : 공개입양가족 사례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순옥(2007). 가족탄력성이 재혼가족 부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재진(2002). 우리나라 공개입양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실태에 관한 연구. **홀트사회복지연구**, 2, 1-47.
- 안재진(2008). 국내입양가족의 초기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성모(2005). 국내 입양가족의 입양과정 경험에 대한 연구 : 입양성공과정의 사례연구.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1.
- 윤현선(2001). 국내입양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수행 자신감, 가족적응력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 · 고진영(2006). **자아개념검사 실시요강**. 서울 : 학지사.
- 이원령 · 이순복(2008). 영재아동의 자아개념과 사회적 능력 및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9(1), 169-189.
- 이위환 · 권용신(2006). 아동의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아동교육**, 15(1), 267-278.
- 이현정(2002). 입양형태에 따른 입양부모의 양육경험 사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명례(2004). 입양에 대한 부모됨의 경험.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운선 · 안재진 · 변미희 · 권지성(2008). 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 II : 1차년도 자료의 사회성발달과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2(4), 473-502.
-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아동학회지**, 13(2), 145-160.
- 허윤미(2005).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 : 쌍둥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9(2), 91-102.
- 현태옥(2004). 공개입양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체험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odzinsky, D. M., Smith, D. W., & Bronzinsky, A. B. (1998). **입양 아동의 적응**. 안재진 역. 서울 : 홀트아동복지회.
- Bronzinsky, D. M. (2006). Family Structural Openness and Communication Openness as Predictors in the Adjustment of Adopted Children. *Adoption Quarterly*, 9(4), The Haworth Press.
- Bronzinsky, D. M., Lang, R., & Smith, D. W. (1995). *Parenting adopted children*.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3 : Status and social conditions of parenting. 209-232. NJ : Lawrence Erlbaum.
- Bronzinsky, D. M., Singer, L. M., & Braff, A. M. (1984). Children's understanding of adoption, *Child Development*, 55, 869-878.
- Grotevant, H. D., Ross, N. M., Marchel, A. M., & McRoy, R. G. (1999). Adaptive behavior in adopted children : Predictors from early risk, collaboration within the adoptive kinship network, and openness arrangem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4, 231-247.
- H. van Gulden, & L. M. Bartels-Rabb (1993). **누가 진짜 부모인가**. 안재진 · 권지성 공역. 서울 : 학지사.
- Lichtenstein, T. (1996). To tell or not to tell : Factors affecting adoptees' telling their adoptive parents about their search. *Child Welfare*, 75(1), 61-72.
- Marsh, H. W. (1984). Self-description questionnaire : age and sex effects in the structure and level of self-concept for preadolescence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5), 940-956.
- Marsh, H. W. (1990). *Self Description Questionnaire I · II · III Manual*. University of Western Sydney, Macarthur.
- Nickman, S. L. (1985). Losses in adoption : The need

for dialogu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40, 365-398.
Walsh. F. (1998). 가족과 레질리언스. 양옥경 · 김미
옥 · 최명민 공역. 서울 : 나남출판사.

Walsh. F. (2002). A Family Resilience Framework :
Innovative Practice Applications, *Family Relations*,
51, 130-137.

2010년 2월 18일 투고, 2010년 5월 3일 수정
2010년 5월 25일 채택